



참된 영성 회복을 위한 기독교 교육

기독교교육과 영성

카렌 머리 유스트/ 바이런 앤더슨 지음 | 이규민 옮김 | 대한기독교서회

현대 교육에서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꼽자면 무엇보다 '영성(교육)'이 먼저 떠오른다. 영성을 상실한 교육은 인간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다. 논리와 이성으로만 탐구하는 지식은 인간의 삶과 세상을 편협하게 보도록 만든다. 이런 편협한 시각은 현대인들로 하여금 물질주의적이고 현재주의적 삶을 살게 한다. 영성이 부재한 교육은 학교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로 확산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영성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리라 기대되는 기독교학교나 교회에서조차도 실상은 참된 영성교육이 결핍되어 있다는 점이다. 영성교육의 부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인간 내면의 깊은 고민과 초월적 존재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없게 만든다. 나아가 그러한 질문조차도 사라지면서 우리의 삶은 건조하고 딱딱해진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사회나 학계에서 영성 혹은 영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시점에서 『기독교교육과 영성』이란 책이 집필되고, 이 책이 번역되어 우리에게 소개된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다. 이 책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영성이 무엇인지, 영성교육이란 무엇인지, 그 방법과 모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과 같은 영성교육의 기초와 실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한편의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참된 영성을 기르는 교육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더구나 이 책에는 교회역사 초창기의 뛰어난 영성교사였던 사막 교부와 교모들의 글들로부터 현대 영성사상가들의 글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글들이 인용되고 있어 독자들은 초기 역사에서 현대에 이르는 영적 거인들을 만나는 즐거움을 누릴 수도 있다. 다만 저자들의 박식함 탓으로 워낙 많은 인물들의 명문장들이 책 속에 인용되고 있어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하려고 하기 보다는 자신의 수준에 맞게 독서할 것을 권면하고 싶다.

필자는 이 책을 읽는 동안 불편하고 심지어 고통스러울 때가 가끔 있었다. 평소에도 종종 생각하는 바이지만 이 책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교사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이다. 교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삶과 자신의 존재를 가르치는 자라는 사실이다. 책의 많은 문장들은 이러한 생각을 지속적으로 제시한다. "영적 교사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야 하며 영적 교사의 삶을 통해 입증되어야

가르침이란
내적 기도의 삶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한다.”(33) 영적 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종교적 행동으로서의 형식적 경건이 아니라 세상의 고통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실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30) 영적교사의 권위는 교사가 가진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하나님을 아는 방식, 즉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바 되고 그 사랑을 구체화하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헌신의 방식”(37)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필자는 대학과 교회 그리고 다양한 장소에서 사람들을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다. 가르치는 동안 종종 내가 가르치는 것과 내가 살아온 방식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답은 종종 부정적이다. 그러면서도 가르치는 일을 멈출 수 없다. 이런 불일치와 긴장 가운데 있는 필자에게 이 책은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다. “가르침이란 내적 기도의 삶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실천을 통해 영성을 온전케 하라.” 이 소리들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는다. 그래서 깊은 기도의 세계로, 하나님의 실천의 현장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한다.

이 책에서 필자는 평소에 갖고 있던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의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질문은 ‘영성회복을

돕는 영적교사가 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나를 포함한 모든 교사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질문일 것이다. 이 책에서는 5세기 그리스의 주교였던 디아도코스의 글을 근거로 이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영적 교사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인 (영적) 지식과 지식을 외적으로 표현하고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지혜를 가진 자이다. 디아도코스는 지혜를 “자신의 술선수법에 기초하여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211)이라 말하기도 한다. 그런데 영적 지식과 지혜는 교사 자신이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독교사는 항상 기도와 연구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영적 지식은 기도, 깊은 고요, 온전한 초연함을 통해 오고, 지혜는 겸손한 성경묵상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 온다고 한다(213). 그러므로 교사가 영적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평생 동안 묵상적 기도와 비판적 연구를 함께 수행해야 된다. 영적 교사는 묵상적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경험해야 되고, 비판적 연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성찰의 경험을 말과 글로써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깊은 묵상적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이 영적 교사의 필수 조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책의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 1부는 교사의 영적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다. 교사의 권위는 하나님을 청중하는 삶에 의해 입증된다는 사실과 기독교인은 ‘하나님에 의해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루터의 정의에 대해 상술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막교부들의 글들을 인용하고, 키에르케고르와 프란시스 드 살레의 책의 내용을 소개한다. 그리고 영적 교사는 가르침과 배움의 공동체적 성격을 이

해하고 이를 추구하는 자여야 한다고 말한다. 공동체적 배움을 위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룩한 듣기, 일상에서 들리는 말씀에 귀 기울이기, 서로의 의견과 생각을 경청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창조하기, 종교적 상상력 키우기 등과 같은 방법들을 다양한 글들을 인용하면서 제안하고 있다.

제 2부는 기독교 영성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서는 영성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이 일어나는 맥락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영성형성이 일어나는 다양한 맥락에 대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의 전통적 교육형태와 현대적 교육을 위한 전략을 소개한다.

제 3부는 기독교 영성교육의 모델에 대한 것이다. 교육에 대한 다양한 은유와 모델을 살펴보고 이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성찰한다. 이를 위해 존 번연의 '천로역정',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존 클리마커스의 '성 영원과 성 행복의 순교'등을 살펴본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삶의 관계에 대한 시에나의 캐서린의 사상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지식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변형적 학습이론과 영적 지식 계발사이의 관계성에 대해 탐구한다.

제 4부는 기독교 영성교육의 평가에 대한 것이다. 영성교육 후 신앙이 바르게 형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일이 중요하며 평가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신앙평가의 대표적인 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로올라의 양심검사법이며, 이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기독교교육을 공부하는 신학도들을 위해 의도되었다. 그러나 이들 뿐 아니라 교회에서 교육적 사역을 감당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이 책에는 영성교육의 필요성과 그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교역자들과 교사들은 이 책에 나와 있는 글들을 활용하여 교회의 다양한 교육활동

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독교)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도 이 책은 매우 유용할 것이다. 교사의 정체성과 참된 교육의 본질에 대해 깊이 숙고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은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부모들에게 필요한 책이다. 부모들은 교회나 학교의 교사 못지않게 중요한 교육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가정에 있는 한, 둘의 자녀를 영적인 영역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그들의 부모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교육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부모들이 이 책을 정독하는 일은 자녀 교육과 영성교육에 대해 심도 깊은 배움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글 | 강영택

미시간주립대에서 교육학으로 전공하고 현재 우석대 교수이다. 저서로는 『고통의 교육에서 희망의 교육으로』 외 다수가 있고, '기독교학교'와 '학교와 마을공동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